

教育は、常に、普遍的かつ個性的な文化の創造と豊かな社会の実現を目指し、平和的な国家及び社会の形成者として自主的精神にみちた健全な人間の育成と、わが国の歴史や文化を尊重し国際社会に生きる日本人の育成とを期して、行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

同時に、教育は、社会の変化に対応して絶えずそのあり方を見直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ものであり、経済・社会のグローバル化、情報技術革命、地球環境問題、少子高齢化など、時代の変化に主体的に対応し、日本の未来を担う人間を育成する教育が、重要になっている。

東京都教育委員会は、このような考え方に立って、以下の「教育目標」に基づき、区市町村教育委員会と連携して、積極的に教育行政を推進していく。

東京都教育委員会は、子供たちが、知性、感性、道徳心や体力をはぐくみ、人間性豊かに成長することを願い、

- 互いの人格を尊重し、思いやりと規範意識のある人間
- 社会の一員として、社会に貢献しようとする人間
- 自ら学び考え行動する、個性と創造力豊かな人間

の育成に向けた教育を重視する。

また、学校教育及び社会教育を充実し、だれもが生涯を通じ、あらゆる場で学び、支え合うことができる社会の実現を図る。

そして、教育は、家庭、学校及び地域のそれぞれが責任を果たし、連携して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ものであるとの認識に立って、すべての都民が教育に参加することを目指していく。

(平成13年1月11日東京都教育委員会決定)

교육은 항상 보편적이고 개성적인 문화의 창조와 풍요로운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며, 평화적 국가 및 사회의 형성자로서 자주적 정신에 충만한 건전한 인간의 육성, 그리고 일본의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며 국제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일본인을 육성하는 것을 지향해 나가야 한다.

그와 동시에, 교육은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끊임없이 그 방향성을 재구성해 나가야 하며, 경제와 사회의 글로벌화, 정보기술 혁명, 지구환경 문제,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시대의 변화에 주체적으로 대응하며 일본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이 중시되고 있다.

도쿄도 교육위원회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하에 아래와 같은 「교육목표」를 바탕으로 구시정촌 교육위원회와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교육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도쿄도 교육위원회는 어린이들이 지성, 감성, 도덕심 및 체력을 길러 인간성이 풍부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며,

-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과 규범의식을 갖춘 사람
-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람
- 스스로 배우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개성과 창조력이 풍부한 사람

위와 같은 사람을 육성하는 교육을 중시한다.

또한, 학교 교육 및 사회 교육을 충실히 이행하여, 모두가 생애를 통해 어디서든 배울 수 있고 서로 도울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교육은 가정, 학교 및 지역이 각자 책임을 다하며 서로 연계하여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모든 도민이 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01년 1월 11일 도쿄도 교육위원회 결정)



三学期始業式(台東区立田原小学校)



中学生「東京駅伝」大会